

대한민국 과연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가?

김도현

쌍용노인전문요양원장

Is productive welfare possible in Korea?

Do-Hyun Kim

Director of Ssangyong Senior Nursing Center

요약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생산적 복지, 사회문제, 사회복지정책, 빈곤, 경제문제

Abstract Productive welfare is a form of welfare policy that helps welfare recipients move beyond being mere objects of support and develop into members who can actively contribute to society and the economy. This aims to improve individual self-reliance, including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ultimatel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n society as a whole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By examining whether productive welfare is possible in Korea,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productive welfare as a solution to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social problems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increased youth unemployment, and widening social gaps have created complex and diverse social welfare needs. In this situation, productive welfar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ethod that goes beyond simple financial support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beneficiaries to become self-reliant.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new horizon for social welfare policy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productive welfare in Korea and exploring ways to achieve it.

Key Words : Productive Welfare, Social Problems, Social Welfare Policy, Poverty, Economic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Do-Hyun Kim(shinss@t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4

Accepted June 21, 2024

Revised March 1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1. 서론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고령화, 청년 실업률의 상승,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심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는 공공 지출 증가와 노동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며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1]. 청년 실업률의 상승은 젊은 세대의 불안정한 미래 전망과 사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2].

이러한 배경 아래, 생산적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개인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수혜자가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포함한다[3].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과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생산적 복지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4].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생산적 복지 실현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개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 포용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5].

생산적 복지 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이들이 시장 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6]. 이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결속력과 포용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및 공공 캠페인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정부는 생산적 복지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7],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기반 시설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다[8].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2. 본론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개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데 이 개념은 국가가 단순한 복지 혜택의 제공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 생산적 복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9].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체계는 주로 금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은 개인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의 현재 상황과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직면하는 한계와 도전 과제들도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의 편중, 자원의 부족, 프로그램의 접근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과 기존 직업군의 변화,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정부,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10]. 이를 통해,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노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생산적 복지의 구현은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서 혁신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모든 시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11].

대한민국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력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년, 실업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12].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 대상의 창업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넷째,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이다[1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복지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14].

아울러 대안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첫째,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 활성화이다.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기술 및 혁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변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실질적인 직업 기술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 시장의 수요와 교육 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 간의

경계를 허물고, 평생 학습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넷째,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기술 혁신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15]. 이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다섯째,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강화이다. 정부, 기업, 노동 조합,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적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의 연계이다. 대한민국의 생산적 복지 노력을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 창출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것인데,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대안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부양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결속력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의 역할은, 첫째, 정책의 수립과 표준화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고용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자원의 배분과 지원한다. 중앙 정부는 필요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적 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지방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연구와 평가이다. 생산적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한다. 넷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중앙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이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의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취약 계층, 산업 구조, 고용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현장 모니터링과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것인데, 지방 정부는 생산적 복지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현장에서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공공 직업 훈련 센터,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생산적 복지를 촉진한다. 이는 지역사회 단체, 교육 기관,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셋째, 공공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이다. 지방 정부는 생산적 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플랫폼, 공공 광고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린다. 넷째, 지역 경제와의 연계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과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이

는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신규 사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 모델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연대와 지역 공동체 강화이다. 지방 정부는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내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활동, 지역 사회 행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이러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생산적 복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자원 배분, 법적 기반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정부 수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정책과 실행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생산적 복지의 실현은 단순한 경제적 부양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포용, 경제적 자립,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증진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이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에게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동시에, 이는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복지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전문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포용의 증진,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실현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포괄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념이자 실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J. E. Kim & H. G. Koo. (2017).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4), 19-49. DOI : <https://doi.org/10.17053/jcc.2017.20.4.002>
- [2] K. S. Han. (1999). Familism of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9), 13-24.
- [3] S. H. Ok. (1989). Study on Familism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mangement Association*, 7(2), 227-234.
- [4] C. S. Park. A Study on the Familism and Sex-ratio in Korea.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6(2), 211-228.
- [5] G. S. Yoo, M. J. Kang & J. E. Yoon. (2018). Young Adults' Family Concepts and Values Among Never-Married In Their 20s : A Comparison of Two Cohorts In 2001 And 2017",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30(3), 42-69. DOI : 10.21478/family.30.3.201809.002
- [6] J. E. Kim & H. G. Koo. (2017).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4), 19-49..

DOI : 10.17053/jcc.2017.20.4.002

- [7] K. S. Han. (1999). Familism of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9), 13-24.
- [8] S. H. Ok. (1989). Study on Familism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management Association*, 7(2), 227-234.
- [9] C. S. Park. (1999). A Study on the Familism and Sex-ratio in Korea.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6(2), 211-228.
- [10] J. E. Kim & H. G. Koo. (2017).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4), 19-49.
DOI : 10.17053/jcc.2017.20.4.002
- [11] K. S. Han. (1999). Familism of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9), 13-24.
- [12] S. H. Ok. (1989). Study on Familism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management Association*, 7(2), 227-234.
- [13] C. S. Park. (1999). A Study on the Familism and Sex-ratio in Korea.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6(2), 211-228.
- [14] J. E. Kim & H. G. Koo. (2017).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4), 19-49.
DOI : 10.17053/jcc.2017.20.4.002
- [15] J. E. Kim & H. G. Koo. (2017).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4), 19-49.
DOI : 10.17053/jcc.2017.20.4.002